

광주시 안일한 상수도 행정 '제한급수 위기' 불렀다

수도관 절반 이상이 20년 노후 ... 연간 934만 톤 땅 속으로 줄줄 새 수원지 해제 기후변화 역행 ... 가뭄 대책 없이 '시민 물 절약 캠페인'

잇따른 가뭄 경고를 외면해 온 광주시의 안일한 상수도 행정이 30년 만의 '제한급수 위기'를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돗물 누수의 주 원인인 노후 상수도관 교체사업이 미루는 바람에 매년 땅 속으로 광주시민이 한 달 가까이 쓸 수 있는 수돗물이 줄줄 새고 있고, 새로운 상수원을 확보해도 부족할 판에 기존 수원지마저 해제하는 등 기후변화에 역행하는 행정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들 사이에선 '대시민 물 절약 캠페인'에 앞서 상수도 예산을 확대 배정하고, 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근본적인 가뭄 대책부터 마련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땅 속으로 새는 수돗물만 잡아도 한 달은 더 버텨=광주도심 지하에 깔린 수도관은 총 4046km로, 이 중 20년 이상된 노후관은 절반인 2013km에 이른다. 일부 노후 상수도관은 정부에서 1994년부터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상수도관을 노후 사용을 금지한 아연도(금) 강관인 것으로 드러나 심각성을 더한다.

노후 상수도관은 지하로 수돗물이 새는 누수를 과다 직결된다. 광주시의 누수율은 전국 특광역시 평균인 4.8%보다 높은 5.2%로, 연간 누수량만 934만톤에 이른다. 광주와 경제 규모 등이 비슷한 대전시 누수율은 1.7%에 불과하다.

광주시민이 하루에 사용하는 급수량이 49만여 톤(1인 기준 337ℓ)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전체 시민이 19일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수돗물이 매년 땅 속으로 새고 있는 셈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최근 시의회 임시회에서 "상수도 누수 방지를 위해 노후 상수도 교체에서부터 빗물 이용시설 확대, 우수저류시설 설치·운영, 장성·담양댐 우수 활용까지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힌 바 있지만, 노후 상수도관 교체 사업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광주시가 지난 11일 시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만 봐도, 2023년 노후 상수도 교체 사업 예산은 올해보다 29억원 늘어난 114억원을 배정하는 데 그쳤다. 내년도 전체 상수도사업 예산도 올해(1373억원)보다 겨우 54억원(4.1%) 증가했을

뿐이다.

114억원이면 노후 상수도관 31km를 정비할 수 있는데, 이 같은 예산배정 속도면 당장 교체가 시급한 노후 상수도관 229km를 정비하는 데만 10년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는 게 상수도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 내년 1월부터 제한급수...대시민 캠페인=지난 12-13일 그토록 기다리던 비가 내렸지만, 광주시민의 식수원인 동북댐이 있는 화순 북면 34.5mm, 주암댐이 있는 순천에는 15mm의 비가 내리는 데 그쳤다. 저수율도 동북댐 32.1%, 주암댐 31.8%대에 머물렀다.

광주시는 가뭄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대부분이 캠페인성 대책이라는 게 문제다.

실제 광주시는 요즘 "내년 3월이면 상수원이 고갈되고, 선제적으로 1월부터 제한급수에 들어갈 수 있다"며 시민을 대상으로 20% 물 절약 캠페인에 나서고 있고, 소원 빗방울 모으기 프로젝트'라는 'SNS 기부제'까지 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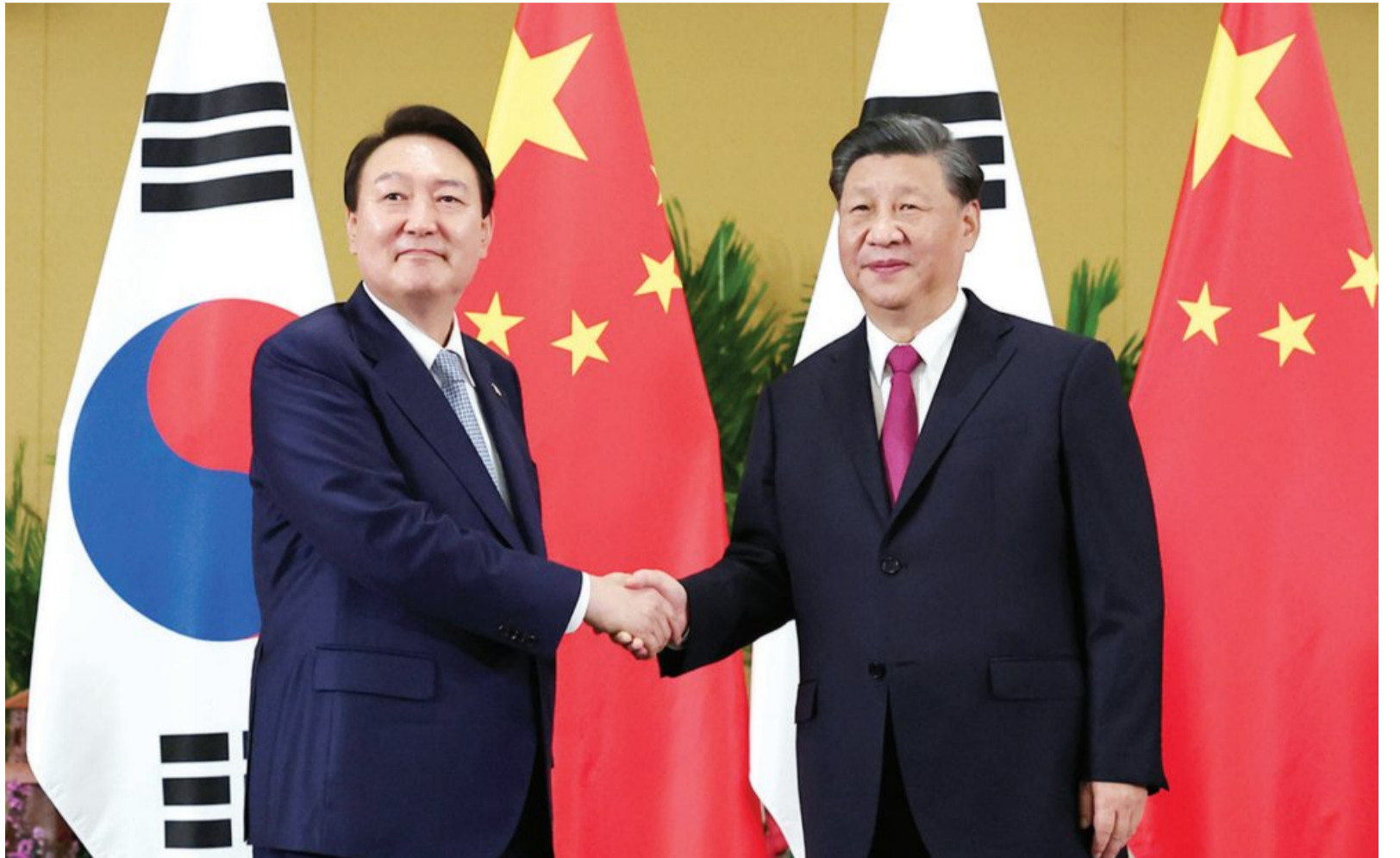
시는 또 가뭄 상황 장기화에 대비한 '위기대응 가뭄극복 추진단'을 구성하고, 수시로 회의를 열어 물 절약 실천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가뭄을 극복할 만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비상수단으로 덕호보 주변 영산강물 끌어다 쓰기, 동북호 상류, 용연·탁남 정수장 18개 배수지 주변 관정 개발하기, 동북댐 바닥 부위 저층수 뽑아 쓰기 등을 구상 중이지만, 기술적 문제 등으로 당장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논란=제4수원지의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적절하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광주시는 최근 광주의 예비 식수원 중 하나인 제4수원지를 41년 만에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공식 해제했는데, 지역 환경단체 등은 '난개발 우려와 함께 기후변화 등에 따른 긴급 취수원 확보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냈다. 환경단체 등의 우려는 현실이 되고 있다. '광주 생명의 숲'은 최근 4수원지에서 영산강 생태계 파괴 지표 중으로 꼽히는 '큰빛이끼벌레'를 처음으로 발견했다.

이경희 광주환경연합 사무처장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광주지 자체 수원지인 4수원지를 비상 상수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상수원 보호 구역 지정은 지속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th@kwangju.co.kr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5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 한 호텔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 "상호존중 한중관계위해 협력"

한·중 정상회담 ... 시진핑 "진정한 다자주의 함께 만들자"

윤석열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우리 정부는 중국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상호 존중과 호혜에 기반한 성숙한 한중 관계를 위해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3월 통화와 8월 한중 수교 30주년 축하 서한을 교환하면서 새로운 한중협력의 시대를 열어가자는데 공감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인적 교류를 포함해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 나아가 기후변화와 에너지 안보와 같은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함께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기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외교 목표는 동아시아와 국제사회의 자유, 평화, 번영을 추구하고 기여하는 것"이라며 "한국은 중국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협력해 나가야 한다. 이것이 양국의 공동이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모두발언에 나선 시 주석은 "세계가 새로운 격동의 변혁기에 접어들고 국제사회가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한 지금 (양국은) 이룰 수 없는 가까운 이웃이자 떼려야 뗄 수 없는 파트너"라며 "지역 평화를 유지하고 세계 번영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책임이 있으며 광범위한 이익관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한국 측과 함께 중·한 관계를 유지 발전시키고 주요20개국(G20) 등 다자간 플랫폼에서의 소통과 협조를 강화하며 진정한 다자주의를 함께 만들어 세계에 더 많은 긍정적인 에너지와 안정성을 제공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지난 3월 (윤 대통령) 당선 이후 통화와 서한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여러 차례 소통했는데, 이는 중·한 관계를 매우 중시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언급했다.

최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도 "다시 한번 조의를 표하며 유가족, 부상자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를 보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세계인구 80억명 돌파

1974년 40억...48년만에 두배

유엔 인구국(UNPD)은 15일(현지시간) 전 세계 인구가 80억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성명을 내고 "이정표가 세워졌다"며 "이는 지구에 대한 인류 공동의 책임을 고려하면서 다양성과 발전을 축하하기 위한 기회"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1974년 40억명을 넘어선 지구 인구는 48년 만에 두 배로 뛰었다. 전 세계 인구가 70억명을 돌파한 것은 11년 전인 2011년이다.

유엔은 현재 인구수에서 10억명이 더 늘어 90억 명이 되는 것은 15년 후인 2037년으로 예측된다며 "세계 인구의 전반적인 성장률이 둔화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지적했다.

유엔은 기대수명과 가임연령 인구 증가로 세계 인구가 2030년에는 약 85억 명, 2050년에는 97억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가별로는 중국과 인도가 나란히 14억명으로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사랑과 감사의 68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2]
기독교영문대학교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광주지역본부

함께 일하는 세상,
로 우리가 있습니다.

업무 개시일 2022년 11월 21일 (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광주지역본부가 새로운 청사로 이전합니다.

새로운 청사에는 광주디지털훈련센터(19층)가 함께 합니다.

새 청사 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차로 268, 20층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광주지역본부 062-448-1199



찾아오시는 길
교통편
•지하철 양동시장역 하차 (도보 400m) 1호선 이용
•버스 천교 하차 시 (도보 90m) 59, 31, 71, 61, 65, 79, 177, 100,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번 이용